

조경업체에서의 철쭉재배품종의 혼선 및 이용실태 분석[†]

최재진* · 박석곤**

*순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Analysis of Confusion of Azalea Cultivars and Its Actual State of Use in Landscaping Businesses

Choi, Jae-Jin* · Park, Seok-G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e of confusion about those azalea cultivars(hereinafter, Azalea Cultivars) that are used among practitioners in landscaping businesses(designers, constructors, and producers). Which Azalea Cultivars would be delivered when they were ordered to producers using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notifi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addition, the situations of azalea cultivar planting designs in the planting design drawings of three apartments completed recently and whether the Azalea Cultivars on the design drawings were the same as those Azalea Cultivars that were actually planted were examined. When Azalea Cultivars were ordered using the notified names, three Azalea Cultivars; Beni, Three, and Daewang were delivered for the name Yeongsanhong and two Azalea Cultivars; Zasanhong and Hancheol were delivered for the name Zasanhong. Yeongsanhong was perceived as a common name of Beni, Three, and Daewang by producers. Therefore, this caused confusion between producers and purchasers. In the case of Zasanhong, as the traits of Zasanhong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ultivar Hancheol, the producers or purchasers might have been una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cultivars and thus two cultivars might have been delivered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used in planting design drawings were the names notified by the notifying agencies or comprehensive and unclear names such as azalea and Yeongsanhong. Completely different Azalea Cultivars from those written in planting design drawings were planted in actual construction sites in many cases. These situations should have occurred because designers did not write accurate cultivar names in planting design drawings and constructors could not accurately perceive the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zalea Cultivars but planted those Azalea Cultivars with similar flowers colors or those that could be easily bought to fit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sites.

Key Words: Notifying Agency, Planting Design Drawing, Construction Site, Cultivar Name

[†] : 이 논문은 2012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 조성비로 연구되었음.

2013년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Seok-Gon Par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Tel.: +82-61-750-3876, E-mail: sgpark@sunchon.ac.kr

국문초록

국내 조경용 철쭉재배품종(이하, 철쭉류)에 대한 조경업체 종사자(설계자 및 시공자, 생산자)간 철쭉류별 혼선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조달청 등의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대로 생산농가에 주문 시 어떤 철쭉류가 배달되는지 조사해 철쭉류의 혼선 실태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완공된 아파트 3곳의 식재설계 도면에서 철쭉류의 식재설계 상황, 도면상의 철쭉류와 실제 식재된 철쭉류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고시된 철쭉류 명칭대로 주문한 결과, 영산홍 명칭으로는 베니, 쓰리, 대왕의 3가지 철쭉류가 배달되었고, 자산홍의 명칭으로는 자산홍, 한철의 2가지 철쭉류가 주문되었다. 영산홍은 베니, 쓰리, 대왕 등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생산자와 주문자간 혼선을 빚었다. 자산홍의 경우에는 한철품종과 형질이 유사하여 생산자가 재배품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거나, 주문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해 두 재배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 명칭은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을 사용하거나, 철쭉, 영산홍 등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식재설계 도면에 기재된 철쭉류는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철쭉류가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설계자가 식재설계 도면에 정확한 재배품종명을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는 각 철쭉류의 분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비슷한 꽃색이나 구입이 용이한 철쭉류를 시공 현장조건에 맞게 심기 때문일 것이다.

주제어: 고시기관, 식재설계도면, 시공현장, 재배품종명

I. 서론

최근 국토가꾸기사업 및 지방자치제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 레저산업의 발달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철쭉재배품종의 식재량이 증가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7). 철쭉재배품종의 생산량은 2008년에 약 1,664만 주로 관목류의 전체비율 31.5%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철쭉재배품종의 생산량이 3,790만 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Lim, 2010). 현재 진달래과에 속하는 속(屬)수는 약 100여개에 종수가 3,000여종에 이르는 거대한 식물군을 이루고 있다(Lee, 2009). 진달래과 *Rhododendron*속의 재배품종을 우리나라 조경업체에서는 '철쭉류' 또는 '철쭉'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옛부터 사람들이 선호하는 철쭉재배품종(이하, 철쭉류)은 품종간 쉽게 교잡되는 특성으로 철쭉류 개발이 쉽고, 외국으로부터 재배품종명 및 형태적 특징 등의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생산농가를 통해 도입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7). 이로 인해 현재 조경용으로 이용되는 철쭉류의 형태적 분류체계가 미약하고, 재배품종명이 불명확한 실정이다(Hwang, 1999).

이러한 실정으로 철쭉류의 사용량이 많은 조경업계에서는 철쭉류의 재배품종별 분류특징 및 재배품종명을 정확하게 인지해 사용하는 종사자(설계자 및 시공자, 생산자)가 극히 드물다. 조경 설계자는 불분명한 철쭉류 명칭을 식재설계도면에 기재하고, 시공현장에서는 식재설계도면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철쭉류가 심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생산자도 꽃 색깔만으로 철쭉류를 구분하고 있어, 상호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Oh, 1998).

한편, 국내 학계에서는 철쭉재배품종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편으로 관련문헌에서도 철쭉류 한국명의 오류와 이명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연구자 간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Xua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용 철쭉류를 생산하는 농가(이하, 생산자)에 조달청 등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대로 주문하여 생산자와 주문자간 철쭉류의 혼선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조경 설계자와 시공자의 철쭉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의 명칭을 분석하고, 식재설계도면에 기재된 철쭉류와 시공현장에서의 식재된 철쭉류의 일치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조경업체에서 철쭉류별 혼선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철쭉류 이용 시에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생산자 및 주문자간 철쭉류 혼선실태 조사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자료(<http://www.klta.or.kr/>)를 활용하여 조경용 철쭉류를 10만 주 이상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 각각 2곳의 생산농가를 선정해 철쭉류를 주문하였다. 철쭉류 주문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충청남도 연기군, 경기도 군포시였다. 조경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물가협회(이하,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된 철쭉류 명칭을 기준으로 식재설계하며, 시공자는 식재설계 도면의 철쭉류 명칭대로 생산

자에게 주문한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고 시해온 철쭉류는 겹철쭉, 백철쭉,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이었 으며, 이 명칭으로 총 10곳의 생산농가에 철쭉류를 주문하여 어떤 철쭉류가 배달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생산자에 전화를 걸어 노지에서 1년 이상 재배한 철쭉류를 2013년 3월경에 3주 씩 주문하였다. 철쭉류 주문취지 및 철쭉류별 꽃색 등의 형질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산자에게 하지 않았다. 배달된 철쭉 류는 순천시에 위치한 농장 노지에 심어, Choi(2013)의 조사방 법 및 철쭉류 분류기준에 따라 재배품종을 구분하였다. 현재 철쭉류의 재배품종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산자 등에서 불 리는 철쭉류의 명칭대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조사시기는 2013 년 4월 1일~5월 15일로 꽃이 만개한 시기를 택했고, 조사시간 은 06시~12시로 화색의 구분이 용이한 시간을 골랐다.

2. 조경 설계자 및 시공자의 철쭉류 이용실태 조사

다양한 철쭉류 생육이 가능한 전라남도 순천시를 대상으로 3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 3곳(H, J, D아파트)의 식재설계 도 면(준공도면)을 입수하였다. 식재설계 도면에서 관목류 및 철 쭉류별 식재설계 비율, 그 명칭을 조사하였다. 또한,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와 시공현장에 식재된 철쭉류의 일치 여부를 알 기 위해 도면상 철쭉류가 식재설계된 30곳을 골라 철쭉류를 구 분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불일치 빈도값(불일치 횟수/ 30곳×100)으로 환산해 정리했다. 철쭉류의 구분은 Choi(2013)의 조사방법 및 분류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생산자 및 주문자간 철쭉류 혼선실태 분석

고시된 철쭉류 명칭대로 주문한 결과, 영산홍과 자산홍 명칭 으로는 2가지 이상의 철쭉류가 배달되었고, 백철쭉, 겹철쭉, 산 철쭉 명칭으로는 동일한 철쭉류가 도착했다(Table 1 참조). 영 산홍 명칭으로 10곳의 생산농가에서 베니, 대왕, 쓰리 3가지 철 쭉류가 각각 다르게 배달되었다. 생산자들은 베니, 대왕, 쓰리 의 철쭉류를 영산홍 명칭으로 지칭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발생했을 것이다. Hwang(1999)은 '영산홍' 명칭을 사 용하지 말도록 결의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영산홍이 특정 철쭉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Lee (2009)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철쭉류를 오랫동안 개량하고 육종 하여, 사쓰끼(サツキ)철쭉, 기리시마(キリシマ)철쭉 등 여러 가 지 꽃모양과 색깔을 가진 수백 가지 재배품종을 만들었는데, 이를 모두 합쳐 영산홍이라 통칭해 부른다고 하였다.

자산홍 명칭으로는 자산홍과 한철 품종이 배달되었다. Choi (2013)는 한철과 자산홍 품종이 잎의 앞뒷면 색, 약(葯)의 색 깔, 암술주두의 색, 잎길이, 화서의 개화수, 꽃직경, 개화시기 등이 유사하여, 두 재배품종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생 산자가 자산홍과 한철품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주 문자가 두 재배품종을 쉽게 동정하지 못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2. 조경 설계자 및 시공자의 철쭉류 이용실태 분석

1)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의 설계 현황

3곳의 신축아파트 식재설계 도면상 관목류 및 철쭉류별 식 재설계 비율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설계도면상 관목류 중에 철쭉류의 식재설계 비율은 평균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다. 철쭉류는 화려한 꽃과 모양으로 관상가치가 높아,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였다(Chang, 2006). 더불어 내공해 성 및 내음성, 내한성이 강하고, 생육량과 이식율이 양호한 동 시에(Kim, 2006), 철쭉류의 생산기간이 2~3년으로 단기간에 대량 재배할 수 있어(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7), 우리나라 조경수목 소재 중에 대표적인 관목이라 식재 설계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철쭉류의 식재설계 비율이 높아, 조경 식물경관이 전국 어디서나千篇일률적으로 단순해지고, 철쭉류의 생산 편중은 다른 조경용 관목류의 재배 및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식재설계 도면상에 기재된 철쭉류 명칭은 영산홍, 자산홍, 백 철쭉, 산철쭉, 철쭉이었다. 이 중에 영산홍의 식재설계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홍, 백철쭉, 산철쭉, 철쭉 순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산홍은 생산자 등이 베니, 쓰리, 대왕 품종을 지칭하며, 한편으로는 일본산 철쭉재배 품종

Table 1. Azalea Cultivars delivered when ordered using the notified names of Azalea Cultivars

Companies by region Names ordered	Jeollanam-do		Jeollabuk-do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Gyeonggi-do	
	G company	D company	N company	B company	J company	D company	K company	G company	B company	J company
Yeongsanhong	Beni		Three		Daewang		Three		Daewang	Three
Zasanhong	Hancheol	Zasanhong								
Sancheoljuk	Sancheoljuk									
Baekcheoljuk	Baekcheoljuk									
Gyeobcheoljuk	Gyeobsancheoljuk									

Table 2. Ratios of shrubs and Azalea Cultivars in planting design drawings

Investigation place	Rate of Azalea Cultivars/shrubs(%)	Rate of Azalea Cultivars(%)					
		Yeongsanhong	Zasanhong	Baekcheoljuk	Sancheoljuk	Cheoljuk	Total
Apartment H	43.0	30.0	23.0	21.2	25.8	-	100.0
Apartment J	63.0	34.9	41.5	4.7	18.9	-	100.0
Apartment D	54.0	27.3	-	39.3	-	33.4	100.0
Average	53.3	30.7	21.5	21.8	14.9	11.1	100.0

을 통칭하는 말로서, 조경업체 종사자간 혼선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설계도면상의 철쭉 명칭은 국가표준식물목록(<http://www.nature.go.kr/>)에서 자생종인 철쭉나무(*R. schlippenbachii*)을 가리킨다. 이처럼 설계도면상 철쭉류의 불명확한 기재는 조경업체 종사자간 혼선을 초래하여 준공검사, 하자처리 등에서 시빗거리를 제공하며, 조경식재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시공현장에서의 철쭉류 식재현황

조사지역 아파트에서의 식재설계 도면과 시공현장 사이의 철쭉류 불일치 빈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설계도면과 시공현장이 불일치한 철쭉류는 영산홍, 자산홍, 산철쭉, 철쭉이었다. 식재설계 도면상 영산홍 명칭은 시공현장에서 자산홍과 베니 품종으로 식재되었고, 자산홍 명칭은 아까도 및 한철, 베니 품종으로, 산철쭉 명칭은 자산홍과 아까도 품종으로, 철쭉 명칭은 자산홍과 베니 품종으로 혼용되어 심어졌다. 반면, 꽃색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백철쭉의 경우에는 3곳의 아파트 모두 백철쭉 품종이 식재되었다.

앞선 결과에서 영산홍 명칭은 생산자 등이 베니, 쓰리, 대왕 품종을 지칭해 사용했고, 자산홍과 한철은 형질이 비슷해 조경업체의 종사자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선과 관련 없이 식재설계 도면과 시공현장 사이의 철쭉류 불

일치가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철쭉류의 분류체계 및 재배품종명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식재설계 도면에 철쭉류의 재배품종명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감리 및 감독도 철쭉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단지 시공현장조건상 입수가 용이하여 화색이 유사한 철쭉류를 심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경업체 종사자들이 철쭉류별 형태적 특성 및 분류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철쭉류의 통칭이나 이명을 사용한다는 점이 혼선을 빚는 큰 원인일 것이다. Oh(1998)는 식재설계에서 재배품종명(학명)을 사용하지 않고,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의 불명확한 수종명 고시는 시공시 조경수목 재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게 식재된 수목에 대한 형식적인 준공검사 등의 공사감리 및 감독의 관행은 조경 식재공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된 철쭉류 명칭은 생산자와 주문자간 혼선을 주었고, 조경 설계자는 식재설계 도면에 명확한 철쭉류의 재배품종명(학명)을 기재하지 않아, 시공현장에는 설계도면과 무관한 철쭉류가 식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 설계 및 시공분야의 조경업체 종사자들이 철쭉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

Table 3. Frequency of discrepancies in Azalea Cultivars between planting design drawings and construction sites

Investigation place	Name in planting design drawings	Azalea Cultivars actually planted(%)						
		Zasanhong	Hancheol	Beni	Akado	Baekcheoljuk	Sancheoljuk	Total
Apartment H	Zasanhong	13.3	-	-	86.7	-	-	100.0
	Yeongsanhong	10.0	-	90.0	-	-	-	100.0
	Sancheoljuk	90.0	-	-	10.0	-	-	100.0
	Baekcheoljuk	-	-	-	-	0	-	0
Apartment J	Zasanhong	63.3	26.7	10.0	-	-	-	100.0
	Yeongsanhong	20.0	-	80.0	-	-	-	100.0
	Baekcheoljuk	-	-	-	-	0	-	0
	Sancheoljuk	-	-	-	-	-	0	0
Apartment D	Cheoljuk	46.7	-	53.3	-	-	-	100.0
	Yeongsanhong	50.0	-	50.0	-	-	-	100.0
	Baekcheoljuk	-	-	-	-	0	-	0

러한 관행은 조경 식재공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조경 식재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철쭉류는 (사)한국조경학회 및 (사)한국조경수협회나 국립수목원 등의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철쭉류별 특징을 반영한 재배품종명을 다시 붙여야 하며, 재배품종별 특징 및 분류기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는 새로 바뀐 재배품종명으로 재고시하여 조경업체 종사자간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산자는 기존에 재배된 철쭉류에 대해 재고시된 신재배품종명을 사용해 주문자와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장차 생산자는 원천이 불분명한 철쭉류보다 재배품종명(학명), 원천 등이 확실한 재배품종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다양한 철쭉신품종을 개발하여 고시기관 및 단체에 등록해 다양한 철쭉재배품종이 고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상록성 철쭉류를 포함하여 만병초까지 많은 재배품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거의 신품종을 육성하지 않았으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 재배품종 육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이를 위해 정부나 산림청, 산림조합 등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철쭉신품종 개발과 육성을 위해 생산농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조경 설계자 및 시공자들의 철쭉류 이용시 문제점은 재배품종별 특징 및 분류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경 설계자는 현재 조경용 철쭉류에 대해서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신재배품종명을 반드시 식재설계 도면에 기재하고,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기재된 철쭉류에 대한 형태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시공현장에 심어야 한다. 향후, 다양한 철쭉신품종이 고시기관 및 단체에 고시되면 식재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색다르고 독창적인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철쭉류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ang, Y. J.(2006) Rooting Promoters, Media and Plug Cell Sizes for the Mass Plug Propagation by Cutting in New Cultivar of Pot Azalea.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2. Choi, J. J.(2013) Analy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ctual Using Status of Azalea Cultivars for landscaping.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3. Hwang, H. J.(1999) Systematic Study on the Genus Rhododendron in Korea.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 Kim, S. I.(2006) Rhododendron(Native species). Landscaping Tree 91: 4-11.
김사일(2006) 진달래속(자생종). 조경수 91: 4-11.
5. Lee, J. S.(2009) Azalea. World Science Publisher, pp.242.
이정식(2009) 철쭉. 월드사이언스, pp.242.
6. Lim, H. T.(2010) Studies on Circul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Shrub Landscape Pla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7.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3) New Cultivar Breeding and Development of Mass Propagation Method in Native and Introduced Azaleas. Research Report t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8.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7)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n Creation, Car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Landscape Trees. Research Report t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농림부(2007) 합리적인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 개선 방안. 농림부 보고서.
9. Oh, K. K.(1998) Analysis on accuracy and indiginity of landscape plants species in planting design and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6(2): 251-258.
10. Xuan, Y. N.(2010) Distribution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ricaceae plants on Mt. Changbai in China.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1. <http://www.klta.or.kr/>
12. <http://www.nature.go.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2월 14일
심 사 일: 2014년 3월 17일(1차)
계 재 확 정 일: 2014년 3월 17일
3인익명 심사필